

##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['25. 9월]

- 국제유가, OPEC+ 증산 등으로 하방압력 지속 전망 -

오정석 | 전문위원(3705-6231)

### 동향

- [원자재지수] 8월 S&P GSCI는 4개월 만에 하락(-0.8%). 다만 월 중반 이후 반등하며 낙폭 축소. 에너지 부문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약세, 반면 농산물과 금속은 상승
  - 부문별로 에너지 -6.3%, 농산물 +5.6%, 산업금속 +2.5%, 귀금속 +5.5%, 축산물 +7.7%
    - 연간으로 S&P GSCI 0.0%, 에너지 -8.8%, 농산물 -5.1%, 산업금속 +6.5%, 귀금속 +33.6%
- [품목별] WTI-7.6%, 亞회발유 -2.4%, 유럽천연가스 -9.4%, 옥수수 +1.0%, 소맥 -1.0%, 대두 +7.8%, 원당 +0.1%, 구리 +3.0%, 알루미늄 +2.0%, 니켈 +3.2%, 철광석 +2.7% 등
  - 국제유가는 러-우 휴전 협상 불확실성 속에서 OPEC+ 증산, 수요 부진, 투기자금 이탈 등으로 4개월 만에 하락.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8월 중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 지속

### 주요 이슈 및 전망

- [원유] 국제유가는 OPEC+의 증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수기가 종료됨에 따라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. 장기 공급과잉 우려가 시장 전반에 확산하고, 관세의 부정적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투자심리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
  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유가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나 세계 수급에 변화가 없는 한 중장기 방향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
- [곡물] 국제곡물 가격은 막바지 기상여건 및 병충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확 시작 및 신곡 출하에 따른 공급 확대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. 다만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이에 따른 단기 반등 가능성은 상존 평가
  - 대두의 경우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(환경보호청의 소규모 정유사에 대한 혼합 의무 면제 등)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
- [금속]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회복 신호가 명확하지 않고, 미국 관세의 부정적 여파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상승세가 이어질지 미지수. 연준이 9월 FOMC에서 신중한 정책조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차 하방압력이 강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
  - 중국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단기 반등이 가능해 보이나, 반등 지속 여부는 경기 부양의 강도와 규모가 관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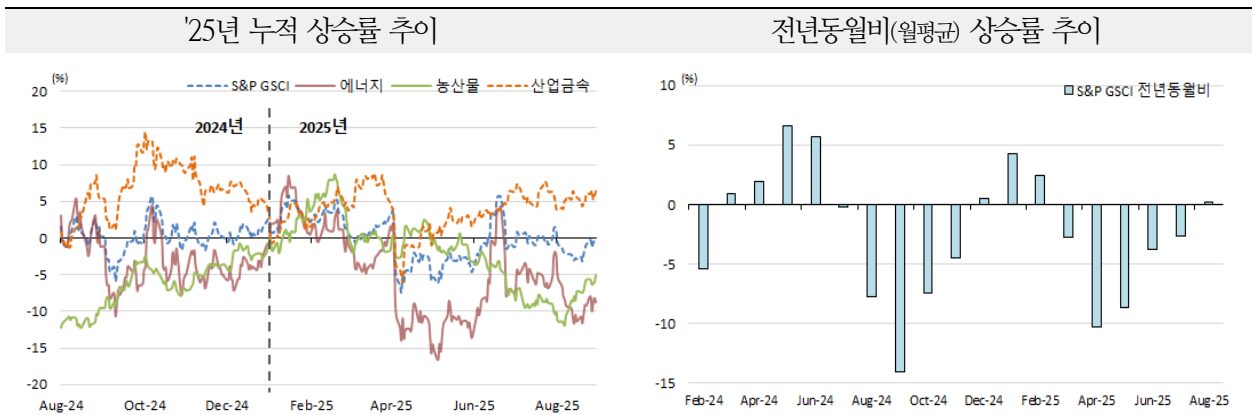
# 1. 국제원자재 가격지수

## □ S&P GSCI 추이

- 8월 S&P GSCI는 4개월 만에 하락(-0.8%). 다만 월 중반 이후 반등하며 낙폭 축소. 에너지 부문은 공급과잉 우려, 투기자금 이탈 등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, 농산물과 금속은 상승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자료 : Bloomberg

지수	7월말	8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동월말비(%)
S&P GSCI*	553.99	549.71	-0.8	0.0	+2.4
에너지	236.90	221.93	-6.3	-8.8	-8.4
농산물	344.14	363.56	+5.6	-5.1	+3.9
산업금속	454.95	466.31	+2.5	+6.5	+4.8
귀금속	4,320.46	4557.17	+5.5	+33.6	+39.2
축산물	492.37	530.47	+7.7	+26.4	+33.9

\* WTI, 美천연가스, 소맥, 옥수수, 원당, 구리, 니켈,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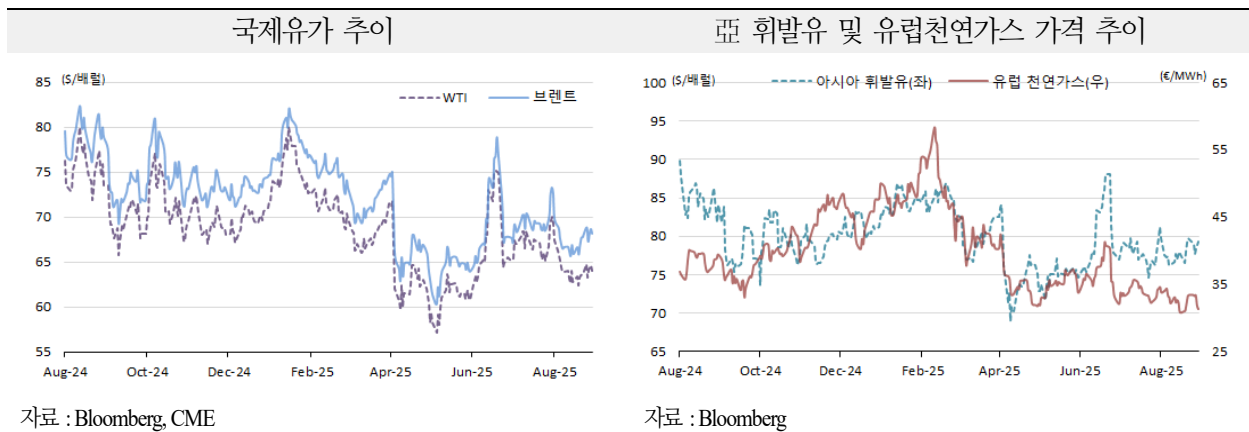
## 2. 원유

### □ [8월 시황] WTI 전월말 대비 -7.6%, 亞 휘발유 -2.4%, 유럽 천연가스 -9.4%

- 국제유가는 러-우 휴전협상 불확실성 속에서 OPEC+ 증산, 수요 부진, 투기자금 이탈 등으로 4개월 만에 하락. 트럼프 대통령의 \$60 하회 가능성 발언도 투자심리에 영향
- 아시아 휘발유 가격도 동반 하락. 다만 7월 이후 \$75~80의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.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8월 중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향 안정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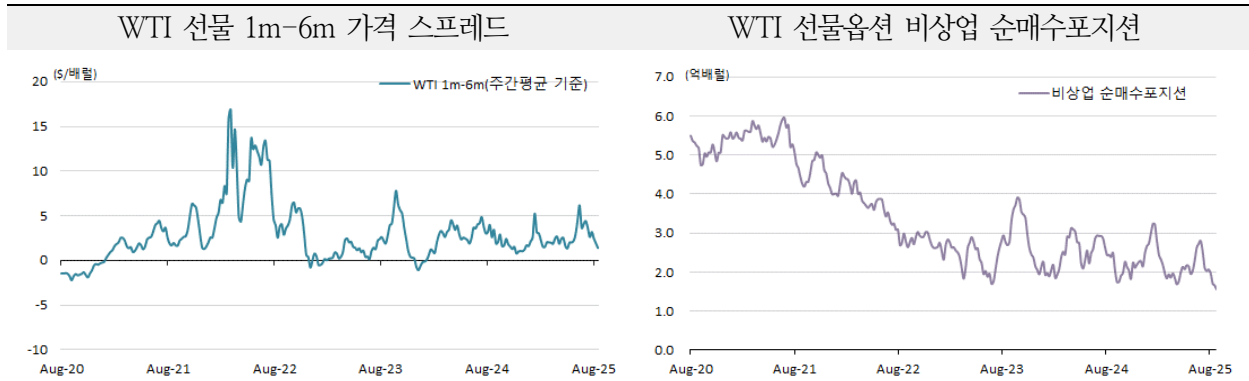
품목	7월말	8월말	전월말비 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4.	'25.(ytd)
WTI(\$)	69.26	64.01	-7.6	-10.8	-13.0	75.76	67.04
브렌트(\$)	72.53	68.12	-6.1	-8.7	-13.6	79.86	70.21
두바이(\$)	72.30	68.41	-5.4	-8.9	-11.3	79.67	70.37
美휘발유(\$)	93.06	91.88	-1.3	+9.3	-1.1	96.66	88.71
亞휘발유(\$)	81.17	79.26	-2.4	-3.6	-5.8	85.49	77.56
美천연가스(\$)	3.106	2.997	-3.5	-17.5	+40.9	2.409	3.536
유럽천연가스(€)	34.58	31.325	-9.4	-37.4	-20.6	34.55	39.14

주 : NYMEX:ICE 선물가격 기준(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). 단 두바이유, 亞휘발유(Ron 92 기준)는 현물가격. 자료 : Bloomberg



### □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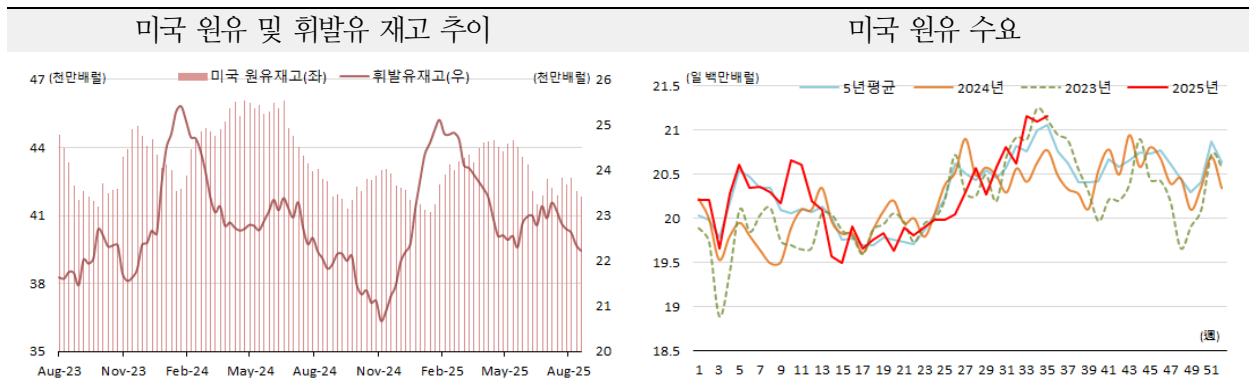
- WTI 선물시장 지표 : 백워데이션 약화, 투기 순매수포지션 감소
  - WTI 근월물 vs. 6월물 가격스프레드(週평균)는 6월 셋째 주(\$6.15, 연중 최고치, 이스라엘-이란 전쟁) 이후 축소되며 8월 마지막 주 \$1.47 기록. 공급 과잉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
  -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8.26일 1.56억 배럴로 '1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.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



자료 : Bloomberg, CME

자료 : CFTC, Bloomberg

- 미국 실물지표 : 원유재고 감소, 원유생산 회복, 원유수출 반등, 원유수요 회복 등
  - 원유재고는 8.22일 4.18억 배럴로 전월말 대비 840만 감소(-2.0%). 휘발유재고도 607만 감소(-2.7%). 원유생산은 일일 1,344만으로 12.5만 증가(+0.9%)하며 4개월래 최고치
  - 원유수출은 7월 중순 일일 311만 배럴로 감소(연중 최저치)한 후 8.22일 377만으로 반등. 원유 수요는 8.22일 2,115만으로 예년 평균을 0.5%, 작년 동기를 1.8% 각각 상회



자료 : EIA

자료 : EIA

- OPEC 및 중국 지표 : OPEC 생산 증가 지속, 사우디 OSP 상향, 중국 원유수입 증가
  - OPEC 7월 생산은 전월 대비 일일 +26만 배럴 기록하며 전월보다 증가 폭 확대. 중국 7월 원유수입은 국영정유사의 높은 가동률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11.5% 증가

	5월	6월	7월	비고
OPEC생산(일 백만 배럴)*	27.05	27.28	27.54	• 사우디 +17만, UAE +11만, 이라크 -5만 등
사우디 생산*	9.18	9.36	9.53	-
사우디 OSP(對亞)**	\$1.2(7월인도)	\$2.2(8월인도)	\$3.2(9월인도)	• 5개월래 최고치
중국 원유수입(백만 톤)**	46.60	49.89	47.20	• 전년동월 대비 +11.5%, 1~7월은 +2.9%

주 :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두바이유/오만유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의미. 자료 : \*OPEC, \*\*Bloomberg

□ [관전포인트] OPEC+ 증산,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지속,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등

- OPEC+, 10월 이후에도 추가 증산에 나설 가능성
  - 지난 4월부터 증산에 나선 OPEC+는 9월에도 일일 54.7만 배럴 증산을 결정. 이로써 '22년 시작된 일일 385만 배럴 감산 가운데 220만 배럴은 당초 계획보다 조기 종료
  - OPEC+는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며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9.7일 회의에서도 추가 증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남은 일일 165만 배럴 감산 조치도 내년 중 종료될 전망
- 국제에너지기구(IEA), 대규모 공급과잉 가능성 경고
  - IEA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증산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아시아 등 신흥국 수요는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. 올해 및 내년 세계 수요 증가 규모는 각각 일일 68만 배럴(09년 이후 최저)과 70만 배럴로 예상
  - 미국 에너지정보청(EIA)도 세계 원유수급이 지난해 일일 +34만 배럴에서 올해 +164만, 내년 +144만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.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금년말 OECD 재고는 28.82억 배럴로 '16년 이후 최고치(20년 팬데믹 당시 제외)를 기록할 가능성
- 인도, 미국의 보복성 관세 압박에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지속 가능성
  -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8월말부터 인도산 제품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25%에 보복성으로 25%를 더한 총 50%의 관세를 부과
  - 인도는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를 앞두고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일부 줄이고 미국 및 중동산 수입을 늘렸으나, 미국-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수입을 재개하는 등 아직 정책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

□ [전망] 국제유가는 OPEC+의 증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수기가 종료됨에 따라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. 장기 공급과잉 우려가 시장 전반에 확산하고, 관세의 부정적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투자심리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
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유가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거나 세계 수급에 변화가 없는 한 중장기 방향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(\$/배럴)〉

	8월(a) <sup>1)</sup>	'25. 3Q(f) <sup>2)</sup>	4Q(f) <sup>2)</sup>	'26. 1Q(f) <sup>2)</sup>	2Q(f) <sup>2)</sup>
WTI	64.02	63.9(+0.4)	60.0(-)	58.6(-1.2)	59.6(-)
브렌트	67.26	66.4(+0.4)	63.5(-0.5)	62(-1)	62.2(-0.8)

주. 1) 8월 평균값 2) 8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 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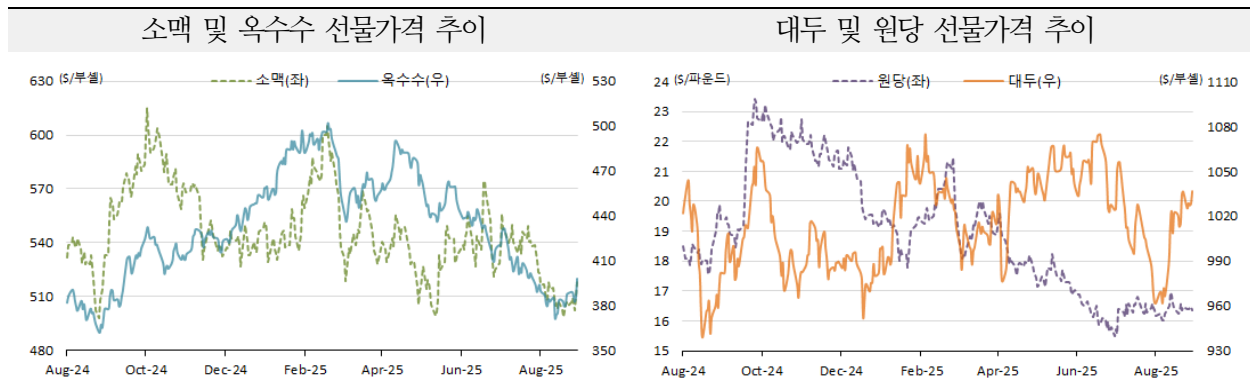
### 3. 곡물

#### □ [8월 시황] CBOT 소맥 전월말 대비 -1.0%, 옥수수 +1.0%, 대두 +7.8%, 원당 +0.1%

- 소맥 가격은 양호한 수확률, 풍부한 재고, 투기 매도세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. 옥수수 가격은 미국의 기록적 생산 전망으로 연중 최저치 기록 후 저가매수세로 반등
- 대두 가격은 브라질의 생산 호조 전망에도 미국의 재배면적 축소, 재고율 하락 가능성 등으로 반등. 원당 가격은 글로벌 공급 호조 전망 속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강보합세

품목	7월말	8월말	전월말비 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4.	'25.(ytd)
소맥(cents/부셸)	523.25	518.00	-1.0	-6.1	-2.8	572.42	538.95
옥수수(cents/부셸)	394.00	398.00	+1.0	-13.2	+5.3	423.82	444.29
대두(cents/부셸)	961.75	1036.75	+7.8	+3.9	+5.6	1,101.59	1027.03
쌀(\$/cwt)	12.28	11.79	-4.0	-15.9	-21.5	16.50	13.20
원당(cents/파운드)	16.35	16.37	+0.1	-15.0	-15.5	20.74	17.82

주 : CBOT·ICE 선물가격 기준. 부셸은 27.2kg, cwt는 45.4kg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CBOT

자료 : Bloomberg, CBOT, 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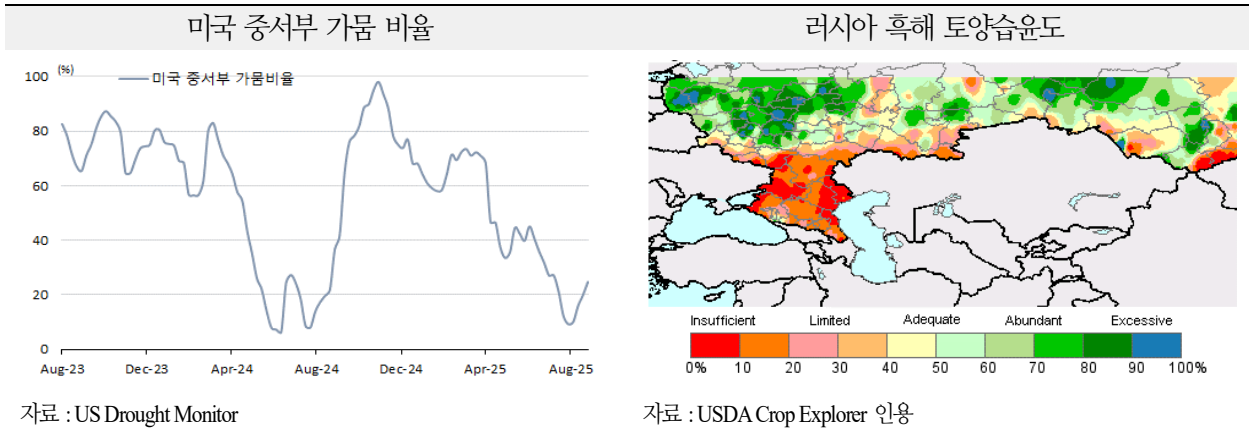
#### □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

- 미국 작황 및 수확 : 옥수수와 대두의 상급 품질 비율은 한 달 전보다 소폭 하락, 보밀은 동일. 겨울밀 수확은 마무리, 보밀 수확은 전년동기보다 빠르게 진행

	품질 : 上級비율(Good/Excellent ratio)			수확률		
	8.24	7.27	전년동기	8.24	전년동기	'20~'24 평균
소맥(겨울밀)	-	-	-	98%	99%	98%
소맥(보밀)	49%	49%	69%	53%	48%	54%
옥수수	71%	73%	65%	-	-	-
대두	69%	70%	67%	-	-	-

자료 : USDA

- **농업기상여건** : 미국 옥수수 및 대두 경작지는 강우, 러시아 소맥 지역은 가뭄 심화
  - 美 중서부(옥수수 및 대두 최대 경작지역) 일부에 전월 중순 많은 비가 내려 홍수 피해가 발생. 다만 전체적인 기상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,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강우량도 평년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
  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맥 재배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작황 악화가 우려. 여름철 무더위, 천적인 조류 감소 등에 따른 메뚜기 급증 등도 수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
  - 동태평양 적도(Niño 3.4) 해수면 온도는 8.20일 평년 대비  $-0.4^{\circ}\text{C}$ 로 6개월째 ENSO 중립(라니냐/ 엘니뇨 아닌 상황)을 유지. 다만 최근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 가을과 초겨울에 짧은 라니냐에 재진입할 가능성(NOAA)



- **세계 곡물수급** : 美 농무부는 8월 WASDE에서 '25/'26년 세계 곡물생산 전망을 29.20억 톤으로 전월보다 0.8% 상향조정. 기말재고와 재고율 전망도 1.1%, 0.2%p 각각 상향

<세계 곡물수급 전망(억 톤)>

	'24/25	'25/26		전년비	전월비		'24/25	'25/26		'24/25	전월비
		7월	8월					7월	8월		
<b>곡물</b>						<b>소맥</b>					
생산	28.47	28.97	29.20	+2.6%	+0.8%	생산	8.00	8.09	8.07	+0.9%	-0.2%
소비	28.82	29.13	29.26	+1.5%	+0.4%	소비	8.07	8.11	8.10	+0.3%	-0.1%
기말재고	7.62	7.48	7.56	-0.7%	+1.1%	기말재고	2.63	2.62	2.60	-1.0%	-0.6%
재고율	26.4%	25.7%	25.9%	-0.6%p	+0.2%p	재고율	32.5%	32.3%	32.1%	-0.4%p	-0.1%p
<b>옥수수</b>						<b>대두</b>					
생산	12.26	12.64	12.89	+5.1%	+2.0%	생산	4.24	4.28	4.26	+0.6%	-0.3%
소비	12.59	12.76	12.89	+2.4%	+1.0%	소비	4.11	4.25	4.25	+3.5%	-0.02%
기말재고	2.83	2.72	2.83	-0.2%	+3.8%	기말재고	1.25	1.26	1.25	-0.2%	-0.9%
재고율	22.5%	21.3%	21.9%	-0.6%p	+0.6%p	재고율	30.5%	29.7%	29.4%	-1.1%p	-0.3%p

자료: USDA WASDE('25.8월)

□ [관전포인트] 미국 옥수수 수확 전망, 중국 대두 수입, 투기자금 동향 등

- 미국 옥수수 기록적 생산 예상. 다만 병충해와 폭염은 변수
  - 미국의 금년 옥수수 생산은 162억 부셸, 에이커 당 182.7부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. 다만 콘벨트 전반의 덥고 습한 날씨로 곰팡이균에 의한 병충해가 확산할 경우 작황이 예상보다 나빠질 가능성(Profarmer)
  - 금년 미국의 대두 생산도 42.5억 부셸로 2년 연속 풍작이 예상되나 일부 재배지역의 건조한 날씨와 병충해가 수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(Profarmer)
-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는 기대난
  - 트럼프 대통령은 대두 부족이 예상되는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, 對중국 관세 유예를 포함한 무역휴전을 90일간 연장
  - 하지만 중국의 9월 대두 수입은 남미산이 대부분이며 10월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.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.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이 수입을 재개할 수는 있겠으나 규모는 제한적일 소지
- 투기세력, 대두와 옥수수는 매수 포지션, 소맥은 매도 포지션 확대
  - CBOT 대두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8.5일 -4.8만 계약에서 8.26일 2.62만 계약으로 증가. 옥수수의 순매수포지션도 7월말 -16.0만 → 8.26일 -8.79만으로 증가. 가격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및 숏 포지션 청산에 기인 평가
  - 반면 소맥의 순매수포지션은 7월말 -7.4만 계약 → 8.26일 -8.0만으로 축소. 글로벌 작황 호조, 빠른 수확 속도 등으로 하락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

□ [전망] 국제곡물 가격은 막바지 기상여건 및 병충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확 시작 및 신곡 출하에 따른 공급 확대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. 다만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이에 따른 단기 반등 가능성은 상존 평가

- 대두의 경우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(환경보호청, 소규모 정유사에 대한 혼합 의무 면제 등)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(cents/부셸)〉

	8월(a) <sup>1)</sup>	'25. 3Q(f) <sup>2)</sup>	4Q(f) <sup>2)</sup>	'26. 1Q(f) <sup>2)</sup>	2Q(f) <sup>2)</sup>
소맥	508.83	545(-5)	540(-20)	580(-)	580(-15)
옥수수	383.57	430(-20)	427.5(-22.5)	450(-)	460(-)
대두	1,005.79	1,030(-30)	1,067.5(-2.5)	1,080(-)	1,095(-5)

주: 1) 8월 평균값 2) 8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 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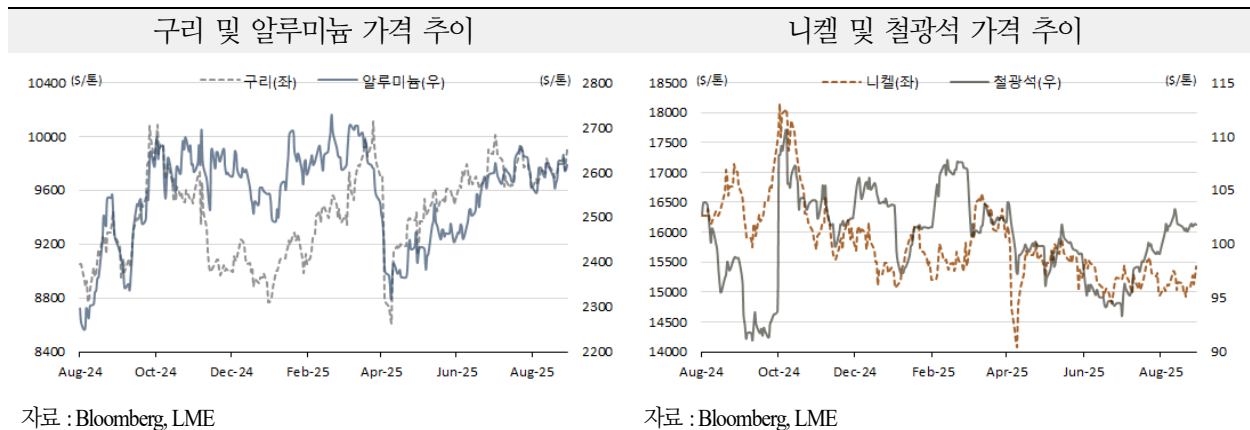
### 4. 비철금속

#### □ [8월 시황]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+3.0%, 알루미늄 +2.0% 니켈 +3.2% 등

- 구리 가격은 연준의 금리 정책 및 달러화 향방에 대한 시장 전망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한 달 만에 반등. 알루미늄은 계절적 수요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
- 니켈 가격도 5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공급 우위 지속으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제한. 철광석 가격은 주요 철강사들의 재고 비축 등으로 2개월 연속 상승

품목	7월말	8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4.	'25.(ytd)
구리(\$/톤)	9,611	9,902	+3.0	+12.9	+7.2	9,266.2	9,527.8
알루미늄(\$/톤)	2,565	2,616	+2.0	+2.5	+6.9	2,457.8	2,560.3
니켈(\$/톤)	14,936	15,421	+3.2	+0.6	-8.0	17,052.0	15,478.2
아연(\$/톤)	2,760.5	2,819.0	+2.1	-5.4	-2.7	2,811.3	2,772.7
납(\$/톤)	1,971	1,991	+1.0	+2.0	-3.0	2,103.1	1,988.0
금(\$/온스)	3,289.93	3,447.95	+4.8	+31.4	+37.7	2,389.7	3,148.1
철광석(\$/톤)	99.12	101.81	+2.7	-1.7	+3.2	110.04	100.29

주 : 철광석은 SGX의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% 기준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LME

자료 : Bloomberg, L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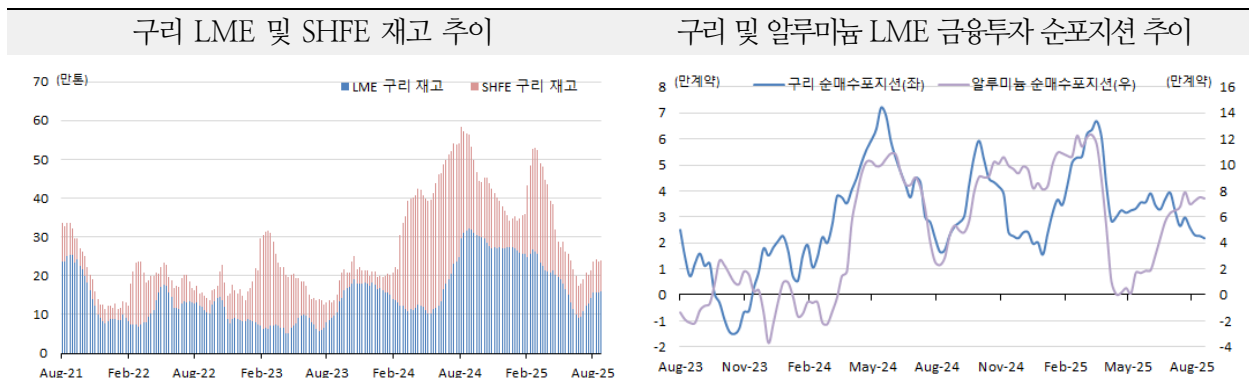
#### □ 주요 지표 점검

- 중국 경기 : 8월 제조업지수 정체, 7월 산업생산·소비 부진/수출은 견조, 주택시장 부진 등

	6월	7월	8월	비고
PMI(국가통계국)	49.7	49.3	49.4	• 예상치(49.5) 하회, 5개월 연속 기준선 하회
산업생산(yoy)	+6.8%	+5.7%	-	• 소매판매 6월 +4.8%→7월 +3.7%, 수출 +5.9%→+7.2%
신규 주택가격(mom)	-0.3%	-0.3%	-	• 전년동월 대비로는 -2.8%(←6월 -3.2%)

자료 : Bloomberg

- LME·SHFE 재고 : 美 관세 발표 이후 구리 재고 큰 폭 증가, 알루미늄 및 니켈도 증가
  - 구리 재고는 8.29일 LME에서 15.9만 톤(한달 전 대비 +2.1만 톤, +15.0%), SHFE에서 8.0만 톤(+0.6만 톤, +8.63%) 등 총 23.9만 톤(+2.7만 톤, +12.8%)으로 3개월래 최고치 기록. 6월말 저점 대비로는 6.6만 톤 증가(+38.6%)
  - 알루미늄 재고는 8.29일 LME와 SHFE 합계 60.7만 톤으로 한달 전보다 3.0만 톤 증가(+5.2%)하며 4개월래 최고치 기록. 니켈 재고는 8.29일 LME와 SHFE 합계 23.6만 톤으로 한달 전 대비 +0.8% 늘어나며 연중 최고치 수준 유지



자료 : Bloomberg, LME

자료 : Bloomberg, LME

- LME 비철금속의 금융투자자 순매수포지션 : 구리는 감소, 알루미늄은 정체
  - 구리 선물의 금융투자자 순포지션은 8.22일 2.17만 계약으로 한달 전보다 0.80만 계약 감소(-26.8%). 연중 최고치(3.21일 6.67만) 대비로는 1/3 수준으로 축소
  - 반면 알루미늄의 순포지션은 7.44만 계약으로 한달 전 대비 0.48만 계약 감소(-6.1%)했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는 횡보세 시현
- 구리 현물 프리미엄(현물가격-3개월물 가격) 하락, 여타 품목은 소폭 상승
  - LME 구리 현물 프리미엄은 8.29일 -\$80.3으로 전월말 대비 \$29.5 하락. 반면 알루미늄은 \$2.98로 전월말 대비 +\$5.62, 니켈은 -\$174.22로 +\$25.98 기록
  - 한편 중국 구리 프리미엄은 8.29일 \$55(전월말 대비 +\$6)로 LME와 다른 모습. 하지만 5월 중순 연중 최고치(\$101)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수요 회복 신호로 보기에겐 곤란

□ [관전포인트] 중국 경기부양 가능성, 미국 알루미늄 관세 강화, 칠레 구리 생산 등

- 중국, 부진한 7월 경기지표로 추가 부양책 발표 가능성
  - 중국은 수출이 견조세를 나타냈으나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부동산 부진이 지속. 주요 IB들은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4.7%로 제시하면서 하반기 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지적

- 하지만, 경기지표가 부진할수록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 실행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평가. 주요 IB들은 주요 경기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
- 미국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범위 확대
  - 미국은 3.12일 알루미늄과 관련 파생제품에 대해 25% 관세를 부과했으며, 6.4일에는 관세율을 50%로 상향. 8.18일에는 파생상품 범위에 각종 주방도구와 공업용품 등 407개를 추가
  - 관세 강화는 물가, 고용, 소비 등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, 이는 알루미늄을 포함한 금속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
- 칠레 Codelco(국영 구리업체, 세계 1위), 올해 생산 목표 하향조정 소지
  - Codelco의 엘 테니엔테(El Teniente) 광산에서 7월 중 붕괴 사고가 발생. 사고 직후 채굴 작업은 전면 중단되었으며, 8월 하순 일부 구역을 시작으로 가동 재개
  - Codelco는 광산 사고 여파로 3.3만 톤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히고, 금년 연간 생산 목표를 지난 3월의 137~140만 톤보다 낮출 수 있음을 시사
- [전망]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회복 신호가 명확하지 않고, 미국 관세의 부정적 여파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상승세가 이어질지 미지수. 연준이 9월 FOMC에서 신중한 정책조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차 하방압력이 강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
- 중국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단기 반등이 가능해 보이나, 반등 지속 여부는 경기 부양의 강도와 규모가 관건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(\$/톤)〉

	8월(a) <sup>1)</sup>	'25. 3Q(f) <sup>2)</sup>	4Q(f) <sup>2)</sup>	'26. 1Q(f) <sup>2)</sup>	2Q(f) <sup>2)</sup>
구리	9,748.6	9,550(+50)	9,500(-)	9,500(-)	9,600(-)
알루미늄	2,597.9	2,475(-)	2,550(-)	2,600(-)	2,600(-)
니켈	15,146.0	15,100(-)	15,500(-)	16,000(-)	16,300(-)
아연	2,794.8	2,700(-)	2,650(-)	2,725(-)	2,750(-)

주: 1) 8월 평균값 2) 8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 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 
문의: 02-3705-6231 혹은 jsoh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